제 9 장 하이데거와 들뢰즈

1. 하이데거는 다자인(Dasein)의 존재론을 시작했다.

1) 하이데거는 인간을 다자인(Dasein)으로 이해한다.

◇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에게서 'Dasein'은 'Here is A'나 'There is A'라는 의미에서 'here/there is'를 의미하는 말이다.
→ 예를 들어 보자. 숲으로 빽빽한 오솔길을 걷다가 커다란 공터가 나에게 펼쳐지고, 그곳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발견한다. 이런 경험은 정확히 말해서 꽃이 나에게 다가오는 경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존재자'에 대해 열려 있기보다 우선 '존재'에 대해 열려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자인'이 갖는 참된 의미이다. 하이데거는 다자인으로서의 인간은 존재와 '함께 속해 있다'고 이해한다.

2) 하이데거는 지금까지 형이상학이 존재를 망각하고 있었다고 비판한다.

◇ 꽃, 바위, 풀 등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가 꽃, 바위, 풀 등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 하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존재 망각이다.
→ 오솔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사태, 즉 훤하게 밝은 공간, 그래서 꽃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이 바로 '존재'이다. 꽃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존재가 그것을 품고서 내게로 건너오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자들이 없이 '존재'를 사유하려고 한다. 그에게 존재는 존재자들을 존재자들로 우리에게 있게 하는 '훤한 밝힘', 즉 '탈은폐', 즉 알레테이아(aletheia)로 사유된다.

3)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를 사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는 '존재의 품어주는 건너옴'과 '존재자의 품어지는 도래함' 사이의 차이를 말한다.
→ '존재의 품어주는 건너옴'이란 훤한 공간이 꽃을 품고서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라면, '존재자의 품어지는 도래함'이란 꽃이 훤한 공간에 품어지면서 내게 부각되는 것이다. 여기서 열려 있는 훤한 공간이 '존재'라면, 꽃은 '존재자'에 비유될 수 있겠다. 결국 하이데거에게 존재는 존재자를 품어주면서 우리에게 이르며, 동시에 존재자는 존재에 의해 품어지면서 내게로 이른다.

2. 들뢰즈는 '아장스망(agencement)'의 존재론을 구성했다.

1) 실재적인 것(the real)은 잠재적인 것(the virtual)과 현실적인 것(the actual)으로 구성되어 있다.

◇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는 제작의 비유로부터 탈피하여 생성을 새롭게 사유하고자 한다.
→ 플라톤은 나무라는 질료에 의자라는 형상을 가하면 의자가 '생성'된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의지가 의자로서의 동일성(identity)을 유지하는 것이 의자라는 형상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의자가 자신의 동일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질료가 형상을 벗어나려는 힘, 즉 차이(difference)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와는 달리 들뢰즈는 차이를 함축하는 있는 질료들의 자발적인 결합으로부터 어떤 동일성이 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눈꽃을 상상해보면, 우리는 생성에 대한 들뢰즈의 입장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차이로부터 동일성이 출현하는 것이 바로 '생성'이다.

◇ 들뢰즈는 차이를 '잠재적인 것'으로, 동일성을 '현실적인 것'이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잠재적인

것'에서부터 '현실적인 것'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 예를 들어 창에 아름답게 핀 눈꽃도 물, 바람, 기온, 습기, 건물의 배치, 취객의 소변 등등의 차이들의 종합으로 출현한 것이다. 이런 논리는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의 '나'는 현실적인 것이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이 '나'는 결국 수많은 차이가 종합되어 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지금의 '나'도 다른 것들과 마주치고 결합됨으로써 전혀 다른 '나'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은 경험된 것을 초월적인 주체, 즉 자아에 연결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사건은 주체가 없는 내재적 조망과 연결된다. 또한 타자는 다른 자아에 대한 초월성을 회복하지 않고, 모든 다른 자아를 조망된 장의 내재성으로 되돌려준다. 경험주의는 단지 사건들과 타자들만을 인식하며, 그러므로 위대한 개념들의 창조자일 수 있다. 경험주의의 힘은 주체를 정의하는 계기로부터 유래한다. 그에 따르면 주체란 아비투스(habitus), 습관, 다시 말해 내재적 장에서의 습관, '나'라고 이야기하는 습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철학이란 무엇인가(Qu'est-ce que la philosophie)」

2) 들뢰즈의 존재론은 아장스망(agencement), 즉 '다중체(multiplicite)'라는 개념에 응축되어 있다.

◇ 들뢰즈에게 '아장스망'은 새로운 연결이나 결합으로 발생한 배치나 결합을 의미한다.
→ 말이 전사와 만나면, 말은 사자와 같은 역능을 가진 배치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 말이 농부를 만나면, 말은 양과 같은 역능을 가진 배치를 확보하게 된다. 들뢰즈의 '아장스망'은 결국 현상적인 모든 것들이 이질적인 차이들로 결합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 우리는 결코 (무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백지(tabular rasa)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중간(milieu)으로 미끄러져서 들어간다. 우리는 리듬들을 취하거나 아니면 리듬들을 부여하기도 한다. (…) 스피노자가 다음과 같은 진정한 외침을 던진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당신들은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당신들은 신체 혹은 영혼이 이러저러한 마주침(rencontre), 배치(agencement), 결합(combinaison)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알지 못한다." 「스피노자: 실천철학(Spinoza: Philosophie practique)」

◇ 들뢰즈의 아장스망 개념은 '다중체(multiplicite)'라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 '뮐티쁠리시테(multiplicite)'라는 용어에서 '주름'을 의미하는 'pli'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옷은 누군가가 입으면, 주름이 생긴다. 주름진 옷은 결국 옷과 어떤 사람 사이의 연결이나 새로운 배치를 의미한다. 이 주름진 옷이 바로 '다중체'이다. 이 점은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자신도 수많은 타자와 사건에 의해 주름진 '다중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